

MONTHLY KOFA

# 코파의

# 잡지

Tel. 021-3002-909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Cibodas - Tangerang

Vol. **59**  
2019/08



##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니로 공장 이전... 투자 총액 백억 달러 예상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한 투자 총액은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석유 화학 및 자동차, 전자 산업 분야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5일자

현지 인베스터데일리가 보도했다. 산업부 국방·국제산업국의 도디 국장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중국 베이징1공장의 핵심 생산설비를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포 인니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말 서

울에서 현대차 관계자와 회담했을 때 현대차 측은 공장 이전 비용으로 40조 루피아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장의 이전처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으며 3,500명의 고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디 국장은 공장 이전처로 인도네시아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항구를 중심으로 인프라 준비가 진행되고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이사는 공장 이전 대상으로는 베트남이 가장 인기라고 지적했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세금 우대 제도 및 물류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베트남 진출에 나선 기업들이 제2, 제3 후보인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조코위 대통령 “차기 정권 장관급은 전문가 50% 이상을 등용”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는 10월 20일 출범하는 2기 정권의 각료 인선 과정에서 50% 이상

을 전문가로 등용할 생각을 밝혔다. 13일자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소속당인 제1여당 투쟁민주당(PDI-P) 간부들과 잇따라 장관급 인사에 대한 회담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은 각료 인선에 대해 “전문가와 정당 출신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싶다”고 설명하며 “6대 4또는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젊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재차 표명했다. 인도네시아 최고입법기관인 국민평의회(MPR)의 차기 의장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13일자 현지 뎀보에 따르면, 대선에서 패한 프라보

## 인도네시아, 내달 16일 수도 이전처 공표 예상



▲ 바수끼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

바수끼 하디물요노(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은 25일,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자바섬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내달 16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지 뉴스 사이트 드퍽닷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바수끼 장관은 이날 8월 중에 수도 이전과 관련한 행사가 열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바수끼 장관은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공표하는 시정연설에

서 밝히지 않을까”라고 발언하면서도,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16일 국가개발계획청(바페나스, Bappenas) 측이 언급한 대로 “동 깔리만판 주 내지는 중 깔리만판 주 중 어느 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으나,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 창조경제청, 창조경제특구 내년 착공 2024년 완공 목표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청(Bekraf)은 15일 창조산업을 통합하는 창조경제특구 ‘Bekraf 크리에이티브 지구(BCD)’ 개발을 내년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자카르타



에서 차로 1시간 정도 위치에 설치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 드퍽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Bekraf특구는 요리, 패션, 공예,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 음악, 게임 등 응용 분야별로 6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이 특구에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호텔, 주택도 건설한다.

Bekraf의 프리아완 무나프 청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마스터 플랜(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투자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각 분야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한다.

수행자금 대부분은 민간에서 조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워 수비안포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를 지지한 정당 중 야당으로 머물 것이 확실시되는 국민계몽당(PKB)의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총재는 “조코위 대통령, 마룹 아민 차기 부통령이 주요 정당의 간부들과 잇따라 회담했다”고 전했다.

국가민주당(Partai Nasional Demokrat, 이하 나스뎀당)의 조니 사무국장은 “MPR 의장 후보는 당내에서 이미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 한-인도네시아, 투자·교역 분야 세정협력 강화

한국과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이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한 양국가간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건강한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22일 김현준 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로버트 팻빠한(Robert Par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국세청은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지난해 6월 ‘한-인도네시아 국세청 간 상호협력 및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작성해 회의를 정례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내 두 번째로 큰 한



국의 기업 진출국이자 세 번째 투자 대상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청장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한국 기업의 세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팻빠한 청장은 10월 자국 개최 예정인 ‘제9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투자·교역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교역 확대에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정보 교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다음 국세청장 회의를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6%→5.75% 인하

### 2017년 9월 이후 첫 인하... 불확실성에 대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18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6.00%에서 5.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인도네시아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먼저 금리를 낮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인도네시아 등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 한 해 동안 총 1.75%포인트가 올랐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성장률을 5~5.4% 사이로 예상했다.

미 연준은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시사했고,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 조코위 대통령 “법인세 20%로 인하, 2021년 도입할 것”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는 계획에 대해 2021년 도입을 목표로 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12일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조세기본절차법(KUP) ‘2007년 제28호’ 개정안을 8월 중에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재무부 누프란사 홍보 담당관은 “내달 의회가 시작되기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무부의 로버트 세무국장은 법인세의 감세에 대해 “법인세 20%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대로이다. 하지만 올해는 무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 도로공단 자사마르가, 띠네레-세르뽕 고속도로 제1구간 연내 개통

인도네시아 도로 공단 자사마르가(PT Jasa Marga)의 자회사 띠네레 세르뽕 자아(PT Cinere Serpong Jaya, CSJ)는 12일 서부 자바 띠네레와 반뽕 세르뽕간 고속도로(총 연장 10.1킬로미터) 중 제1구간을 연내 개통한다고 밝혔다. 제1구간은 세르뽕-빠물랑으로 총 6.5킬로미터이다. 현지 언론 드퓌크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CSJ의 야안 이사(기술 담당)는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1개월 후 개통할



전망이다”라며 “공사진행률은 현재 73%에 달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제2구간인 빠물랑-띠네레 구간(3.6킬로미터) 공사도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공사진행률은 46%이다. 공공·국민주택부의 고속도

로통제청(BPTJ)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는 내년 3월을 목표로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까지 연장된다.

중부자바주 수라카르타(솔로)와 족자카르타특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이달 말 입찰을 시작한다. BPTJ 다낭 청장은 “향후 3개월 안에 사업자를 결정하고 연내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LIGHT+**  
The Solutions of LED

**LED 조명**

**인니 현지 생산  
가성비 최고  
품질 완벽보장**

한국부품을 사용해 수입품에 비해 가성비 극대화  
인니 판매를 위한 SNI, TKDN, SUCOFINDO, ISO9001 등 완벽한 인허가  
적정 재고보유로 소량 및 대량주문에도 정확한 공급가능  
현장 맞춤형 특수스펙제작 및 품질보증과 신속한 A/S



LED Module Light SSM



LED Street Light SSE



HIGHBAY UFO



LED TUBE T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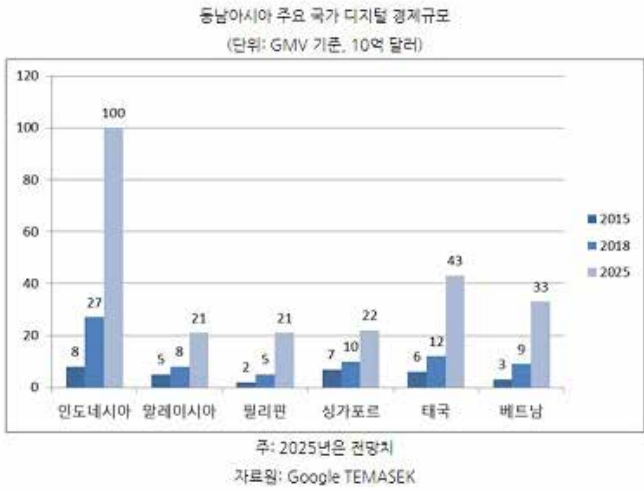
PT. Surya Citra Teknik Cemerlang (LIGHT+)

JL. Raya Narogong Pangkalan 1B, Bantar Gebang, Bekasi 17151

TELP : (021) 8262 7380 Fax : (021) 8263 4261

한국인 상담 : 0816 857 404 Email : sungleejkt@gmail.com

# 인도네시아 기업들 낙관론 압도적



글로벌 투자은행 HSBC 조사에서 향후 2년 간 성장을 낙관하는 기업의 비율이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았다고 8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향후 성장을 낙관하는 기업의 비율이 인도네시아는 98%였던 반면, 세계 평균은 79%였다.

HSBC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지역 14개국에서 2,500개 기업의 대표에게 향후 2년 간 성장을 묻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해 6월 말에 'Navigator : Future for Made'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호주, 중국 본토,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영국,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 국가에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HSBC인도네시아의 수미트 두파 대표는 보고서에 "인도네시아 기업인의 절반 가량(45%)이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전망했고,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썼다.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기반을 강화하고 노동력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가 위협보다 크다**  
기업의 미래에 대해 물었을 때, 인도네시아 응답자의 74%가 위협보다 기회가 클 것으로 낙관한다고 답했다.

경영자들은 특히 인도네시아 온라인 시장에 사업 기회가 크다고 보았다. 온라인 시장의 사업 기회가 크다고 답한 비율은 세계 평균은 15%에 그쳤지만 인도네시아는 31%로 두 배가 넘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들은 3가지 위협으로 정치환경(36%), 신규 경쟁자(33%)와 경쟁자의 성과(33%), 환율(26%) 등을 꼽았다.

HSBC는 이번 조사를 근거로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더 많은 서비스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 등에 광범위한 투자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즈니스 혁신 및 인력**  
인도네시아 기업에서 비즈니스 혁신과 근무 환경에 대해 물었을 때, 경영자의 54%는 '생존을 위한 전제 조건' 이 아니라 '성장 동력' 으로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계적으로 기업인들은 혁신을 성장동력으로 인식했지만 혁신에 대한 비용을 어려움으로 인식했고, 이것은 인도네시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들은 기술 부족과 기술 부문 투자 부족을 다른 국가보다도 인도네시아에서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들은 앞으로 2년 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기술은 사물인터넷(IoT), 5G, 인공지능 등이라고 답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 반도체가 빛이 길래?

인간은 5감에 하나를 더하여 6감(sixth sense)을 가지고 있다. 듣고, 보고, 맛보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 알게 되는데다 그간의 경험으로 상황에 따라 알게 되는 지각인 6감이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는 입력장치라는 것을 두고 있다. 글자판으로 입력하고 바코드나 QR 코드를 스캔하며 사진을 찍고, 이어폰으로 듣는다.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는 두뇌인 메모리에 저장하고 기억하며 판단하여 실행하게 된다. 판단하여 실행하게 하는 장치가 컴퓨터의 CPU(중앙처리장치)이고 스마트폰의 모바일 AP(응용 프로세서)와 같은 것이다. 출력은 스피커와 화면으로, 또 프린터로 인쇄하기도 한다.

인간이 뇌에다 기억하듯이 기기도 저장을 한다. 이것이 바로 메모리(반도체)이다. 메모리가 없는 전자기기는 죽은 것이다.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저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물이 하늘로 치솟는다. 이것이 메모리의 3D 적층(積層)이다. 오래전에 썼던 진공관과 라디오에서 주로 쓰이는 트랜지스터는 증폭과 정류를 하는 반도체이다. 이제는 아주 작은 기판에 많은 회로를 담은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가 반도체의 주류이며 메모리로 쓰이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은 휴대하기 쉽도록 메모리의 부피는 작아지면서도 그 용량이 커야 하기 때문에 집적도가 높아진다.

이제는 나노 크기로 회로의 간격이 줄어들었고 높게 포개어 쌓는 적층이 100층을 넘어섰다.

반도체의 대표적인 물질이 고무나 유리 등인데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리의 원료인 모래(규소)에 불순물을 섞으면 반도체가 된다. 이를 녹여서 원통의 모양으로 만든 것이 잉곳(ingot)이다. 잉곳을 잘게 썰어 만든 둥근 기판이 웨이퍼(wafer)인데 여기에 특수 물질을 입히고 정밀한 회로 설계도를 얹어 사진 찍듯 주사하여 인화하고 깎아낸 뒤 잘라 다듬으면 메모리 반도체가 된다. 물론 세부 공정은 수백 가지나 된다. 고층 아파트는 고속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있어야 할 것이고 증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등 안전에도 각별한 장치를 해야 하듯이 초집적, 고적층 반도체도 간섭문제나 저열, 저전력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일본이 팔지 않겠다는 재료 3가지는 간섭이 적은 파장을 내는 레이저 발광장치 같은 극자외선(EUV) 발광기에 반응하는 고분자물질의 감광제(포토 리지스트; PR), 감광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데 쓰는 식각용 가스인 고순도 불산(HF), 그리고 휘어지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만드는 데 쓰는 기판의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가지다. 당장 만들 수도 없고 다른 데서 구입하기도 어려운 것이라 급소에 짤렸다. 뒤따라오던 한국이 앞질러 갈까봐 발목을 걸어 넘기는 일로 비겁하다고 원망하기 보다는 대비하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속내야 어떻든, 겉으로는 돈 안 받고 안 팔겠다는 똥배짱이다. 그것들이 없으면 못 만드는 쪽은 엄청 비싼 공부를 하



조기조 교수

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조선이 건국한 1392년에서 꼭 200년 만에 덕친 차욕의 임진왜란도 내분과 방심의 결과다. 그 후 400년 만에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권력다툼으로 국력이 파멸해졌고, 폭정에 못이긴 백성들이 개혁을 부르짖으며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자 무능한 정권이 청군을 끌어들이며 진압을 시킨다. 이에 왜군이 밀고 들어와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긴 일본은 조선을 먹고 대동아 전쟁까지 벌였다. 패퇴한 청나라는 망했다가 100년 만에 G2로 되살아났다. 개혁과 개방, 연구개발에 더디고 협치하지 않으면 언제 먹힐지 모른다. 2천년의 역사를 보고도 또 당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일이 100년 전이나 어찌 다른가?

**조기조(曹基祚 Ky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 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kakaoVX Teeup VISION SCREEN GOLF™**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 1억 9천만원짜리 운동화



스포츠 용품업체 나이키의 공동창업주 빌 바워먼이 1972년 올림픽 예선전 육상 선수를 위해 디자인한 '문 슈(Moon Shoe)'가 23일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 나온다. 낙찰 예상가는 16만달러, 우리 돈 1억 9,000만원이다. 나이키 운동화가 뉴욕 소더비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같은 날 문 슈를 비롯해 희귀 운동화 100컬레가 출품된다. 한국일보

## 정부, 향후 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개발 157건 입찰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2년 안에 총 157개소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개발사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 해리스 부장(재생 에너지 담당)은 “동부자바주, 발리, 누사틉가라 바랏주에서 약 50개소, 서부·중부자바주에서 25개소의 발전소를 각각 건설한다”라며 “이 밖에 수마트라와 깔리만판섬, 술라웨시섬 등에도 건설할 계획이지만 입찰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언급했다.

해리스 부장은 이어 “타당성 조사와 국영 전력 PLN 이사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입찰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전원 구성을 23% 이상으로 끌어 올릴 목표이지만, 지난 2년 동안 개발이 승인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는 75곳(총 출력 15만kW)에 불과했다. 또 이 가운

데 개발 중인 발전소는 8개소에 그치고 있다. 지열 발전소는 지난 3년 동안 단 1건도 착공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NGO) 인스티튜트 포 에센셜 서비스 리폼(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 IESR)의 파비 이사는 “PLN의 승인 절차가 재생가능에너지 시장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석탄 대형 아다로 에너지(PT Adaro Energy)의 자회사 아다로 파워(PT Adaro Power)는 발리와 수마트라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PLN에 승인 신청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언급했다.



한국 점유율 1위!

# 한신 에어 콤프레터서

콤프레터서하면 한신입니다!



###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 초경량 무게와 기능성을 모두 살린 브랜드 러닝화 9종

모든 러너들이 동일한 기능성 슈즈를 찾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있다. 바로 '경량'의 스니커즈다.

러닝 애호가, 특히 장거리를 달리는 러너들은 발이 무거운 것을 원치 않는다. 대신, 보다 가벼운 실루엣의 러닝화를 원한다. 이를 알고 있는 몇몇 최고급 브랜드들이 10온스 무게도 나가지 않는 남성용 스니커즈를 출시했다.

아식스나 써코니, 브룩스 같은 브랜드들이 초경량이면서도 쿠션과 아퍼의 기능을 살린 기능성 신발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의사항

□ 러닝화가 무거우면 더욱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렇다면, 경량의 러닝화를 신고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떨까?

□ 오래 달릴수록 무거운 신발을 신으면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장거리 러너들은 경량의 운동화로 지면을 느끼면서 달릴 수 있다.

□ 그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러닝화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특징이나 자신의 발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최고의 브랜드에서 출시한 남성용 초경량 기능성 러닝화 9종에 관한 내용이다.



**써코니의 킨바라 10 (Kinvara 10)**  
써코니의 신상품 킨바라 라인은 러너들이 좋아하는 에너지 반동 에버런 (Everun) 플



▲ 나이키 줌 페가수스 터보 (Zoom Pegasus Turbo)를 신은 러너들

랫폼을 사용했다. 무게도 7.8 온스 밖에 나가지 않아 장거리 러너들이 소장해야 할 상품이다.



**아식스의 다이나플라이트 3 (Dynaflyte 3)**  
이 상품은 9.07온스 밖에 나가지 않는다. 기능성도 견비하고 있다. 쿠션 플랫폼인 젤 (Gel)과 신기술 플라이트폼 (FlyteFoam)으로 반응성과 충격 흡수 기능을 강화했다.



**브룩스의 라베나 10 (Ravenna 10)**  
추가 지지대가 필요한 러너

들을 위해 브룩스가 9.4온스 무게에 새로운 가이드레일 (GuideRails) 시스템을 장착한 라베나 10을 출시했다. 그리고 앞발에 발포고무를 덧댄 미드솔도 추가했다.



**나이키의 줌 페가수스 터보 (Nike Zoom Pegasus Turbo)**  
줌X 에너지 반동 쿠션을 장착한 이 러닝화의 무게는 8.4 온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러너의 아킬레스를 편안하게 만드는 힐 칼라가 특징이다.



**뉴발란스의 프레시 폼 비컨 (Fresh Foam Beacon)**  
뉴발란스의 프레시 폼 비컨은 두툼한 쿠션을 넣었지만 무게는 7.5온스 정도다. 그리고 통기성이 좋은 니트 합성 아퍼가 특징이다.



**알트라 에스칼란트 1.5 (Escalante 1.5)**  
7.9온스 무게의 에스칼란트 1.5는 독점 기술인 반동성 듀얼 네이처 (Dual-Nature) 미드솔이 특징이다.



**리복의 패스트 플렉스위브 (Fast Flexweave)**  
리복은 활동성에 중점을 둔 견고한 러닝화를 디자인했다. 스피드 운동을 위해 디자인한 이 상품은 내구력이 강하고 유연한 플렉스위브 아퍼를 사용했다.



**미즈노의 웨이브 라이더 22 (Wave Rider 22)**  
9.6온스 무게의 이 기능성 신발은 부드러우면서도 내구력이 있는 U4icX 미드솔과 내구력과 통기성이 좋은 메쉬 아퍼를 사용했다.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4 (Adizero Adios 4)**  
현재 출시된 스니커즈 중 최고의 쿠션을 자랑하는 이 스니커즈는 반동성 소재를 사용했다. 8온스 무게의 이 상품은 젓거나 마른 도로에서도 마찰력이 높은 컨티넨탈 러버 (Continental Rubber)를 적용했다.  
출처: footwearnews.com

남선알미늄
 (주)미안 ACE WINDOW
 이지폴딩
 현대홈도어

**PT. KAISAR SINAR HISASH**  
www.siansash.co.id / www.pintulipat.id

## 우리는 窓門을 만듭니다!

시안의 窓門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고 책임시공을 약속합니다.

**HEAD OFFICE / FACTORY JAKARTA**  
Jl. Pahlawan KM 1, Karang Asem Timur Citeureup – Bogor 16810 Indonesia

Telp. : 021-8794-3838 Fax.: 021-8794-3839  
Email : info@siansash.co.id

##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스니커 순위 탑 10 '에어 이지' 는 있지만 '이지 부스트' 는 없다.



▲ 1위: 칸예 웨스트 x 루이 비통 제스퍼  
가격: 약 3만 달러



▲ 2위: 나이키 에어 맥 가격: 약 1만5천 달러

파페치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니커의 순위를 공개했다. 순위는 <1000 Sneakers>의 저자인 매튜 레 모를 포함한 여러 스니커 전문가들이 각 스니커의 희귀성, 상태, 소재, 당시 디자이너의 입지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매겼다. 작가 매튜는 “유명한 디자이너, 혹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협업한 한정판 모델일수록 가치가 높게 매겨진다.” 라고 선정 기준에 대해 덧붙였다. 여러 쟁쟁한 인기 스니커 중 가장 가치있는 스니커로 꼽힌 아이템은 과연 무엇일까? 파페치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니커 탑 10' 은 아래와 같다.



▲ 3위: 샤넬 x 퍼렐 x 아디다스 NMD HU  
가격: 약 1만4천 달러



▲ 6위: 나이키 에어 이지 '블랭크'  
가격: 약 6천 달러



▲ 9위: 나이키 루나 플라이닛 HTM '밀라노'  
가격: 약 5천9백 달러



▲ 4위: 나이키 에어 이지 2 '레드 옥토퍼'  
가격: 약 8천4백 달러



▲ 7위: 나이키 에어 이지 2 '플래티넘'  
가격: 약 6천 달러



▲ 10위: 에어 조던 레트로 T23 '도일'  
가격: 약 5천3백 달러



▲ 5위: 나이키 에어 이지 2 '솔라 레드'  
가격: 약 8천 달러



▲ 8위: 오프 화이트 x 에어 조던 1 시카고  
가격: 약 6천 달러

## 원자재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위축되지 않아

인도네시아 올해 상반기에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감소했지만 이것이 제조업 생산량이 감소한 것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1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액은 8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3% 감소했고,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등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감소했다.

원부자재 수입액은 6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다. 자본재 수입액은 131억6천만 달러로 6.15% 감소했고, 소비재 수입액은 74억 달러로 9.31% 감소했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의 로산 투슬라니 회장은 16일 석탄 같은 자원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제조업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산 회장은 “전체 수입물량의 90% 가량이 원자재와 자본재” 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의 조니 다르마완 회장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원자재와 자본재 재고가 많아서 수입이 감소한 것이라며, 제

조업 위축설을 반박했다.

그는 “정치적 화해에 따른 낙관론이 주식시장에 반영됐다” 라며 “8월에는 수입액이 회복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단기적으로 무역전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제조업 성장률이 지난해 5%에 못 미쳤으며, 올해는 5.3%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신발협회(Aprisindo)의 피르만 바끄리 이사는 올해 상반기에 회원사로부터 신발 생산량이나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세 둔화와 무역전쟁 여파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피르만 회장은 이어 인도네시아 신발산업이 원부자재의 60% 가량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에 뚜렷한 수입량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공지사항

KOFA 소식지는 알차고 참된 내용으로 회원사 소식과 정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1. 회원사 주소 및 이메일 변경 등으로 협회에서 공식 공문 및 소식 전달에 애로가 있어 회원사 정보를 정리하여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고자 합니다.  
1) 회사명 2) 대표자 (회원) 성명 : 한글, 영문 3) 개인 핸드폰번호 4) 회사 전화번호 5) 회사주소 6) 사용 가능한 이메일주소 7) 홈페이지 주소
2. 코파 소식지는 현재 주소가 있는 회원사는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파 소식지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으면 위 정보를 다시 한번 협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dokofa@gmail.com 문의전화 : 021-5579-6569

#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Jl. Mahoni 1 Multiguna Niaga Lippo Cikarang No. 3, Sukaresmi  
Cikarang Selatan Kab Bekasi - Jawa Barat, Indonesia  
Telp. : +62 21 8990 4038 / 4037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 뉴발란스, 3D 프린팅 기술 적용 '트리플셀' 플랫폼 출시



▲ 출처: Running Insight

뉴발란스가 폼랩스 (Form-labs)의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는 기존의 기능성 쿠션을 개선한 요소다.

트리플셀 (TripleCell)이라는 명칭의 이 플랫폼은 6월 28일 출시된 990 스포츠에 처음 적용됐다.

한편, 9월 15일에 퓨얼셀 에

코 (FuelCell Echo)도 발표할 예정이다. 두 가지 상품 모두 트리플셀 기술을 사용한 것이 특징으로써 소매가격은 각각 185달러와 175달러다.

2017년, 뉴발란스와 폼랩스는 고성능 소재와 하드웨어, 운동선수 풋웨어를 위한 제조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관계를 통해, 리바운드 레진 (Rebound Resin)이라는 새로운 광중합체 수지를 개발했다. 리바운드 레진은 보통 주입식 열가소성 수지의 특징인 내구력과 회복력, 긴 수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격자 모양의 구조다.

“트리플셀로 발 아래에 균일한 변화를 줄 수 있게 됐다.”고 뉴발란스의 Katherine Petrecca 총괄이사는 말

했다. “미국 뉴발란스 공장 내에서 최첨단의 디지털 제작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는 3D 프린팅 제작 기술의 선두주자가 됐다.”

“폼랩스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 우리들은 기능성 상품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맞춤형 상품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고 Petrecca 총괄이사는 입장을 밝혔다.

“3D 프린팅은 기업의 제조법을 바꿔놓고 있다.”고 폼랩스의 David Lakatos 최고 상품책임자는 말했다. “주조법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 개발 및 생산 주기를 단축시켰다.”

“우리는 디자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뉴발란스가 그 선봉에 서있다.”

뉴발란스는 트리플셀 플랫폼을 적용할 상품으로 990 스포츠를 선택했다. 그리고 뒤꿈치에 적용된 트리플셀 기술로 쿠션감이 균일하게 느껴지면서도 990v5 상품보다 10% 가량 가벼운 효과를 냈다.

한편, 트리플셀을 적용한 990 스포츠 모델은 미국 뉴발란스 로렌스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대한민국 최초 ISO 8573-1 Class "0" 인증획득!**

**COAIRE COMPRESSOR**  
www.ekyungwon.co.kr

**KYUNGWON COMPRESSOR**

## 대한민국 콤프레샤의 역사

# 경원 콤프레샤

**경원 콤프레샤는?**

사용이 편리한 다기능 Full MICOM 장착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운전모드  
대화가 가능한 운전소음  
오일함량 2PPM 이하의 청정한 압축공기  
주위온도 50C에서도 안정적인 운전가능  
경원의 모든제품 AS가능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도 가능) 및  
주요부품, 소모품 상시보유

스마트한

**내 손안의 관리시스템- 경원 CMS**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완벽한 해법, 경원 콤프레샤 모니터링 시스템

**PC Version**

**운전상황 Monitoring**

1. 최대 15대까지 모니터링
2. 상태 모니터링
  - 공기압력, 토출온도, 운전상태
  - 실시간 온도, 압력 확인
  - 과거 운전 이력 확인
  - 알람 실시간 문자메시지 발송
3. 운전시간
  - 총 운전시간, 남은 유비보수 시간 확인
4. 콤프레샤 관리보고서 출력
  - 가동율, 유지보수 시간, 가동 패턴
  - 에너지 유량 현황, 전년동기 전력, 유량 분석

| PT. KYUNGWON CENTURY KORAIR   |   |  |
|---|---|--|
| INDONESIA OFFICE  | JEPARA OFFICE   | KOREA OFFICE   |
| Jl. Raya Serang KM. 12 Desa Bunder<br>Cikupa-Tangerang<br>Telp : 021 5940 2605<br>김태봉 : +62 811 932 689<br>E-Mail : kimb160@gmail.com | Ruko 1A Suudi RT. 04 RW. 01Desa Kali Pucang Wetan,<br>Kec. Welahan Jepara Jateng (Depan SMPN 1 Welahan)<br>Kode Pos 59464<br>Telp : 0291 751 2682 | 102 Dongil-Ro, Kwangjin-Gu<br>Seoul, Korea<br>Telp : +82 2 465 6308<br>Fax : +62 2 468 7202<br>E-Mail : dbkw2000@hanmail.net<br>http ://www.dbkw2000.com |



## 나이키 하청업체, 생산기지 다변화... 탈 베트남 추진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었던 기업들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율 관세 부담과 노동력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중국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던 기업도 베트남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1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이 붕괴하고 있다며, 국제무역의 뉴 노멀은 안전처가 거의 없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나이키 제품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생산하는 대만 기업인 에클랏은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생산시설을 여러 국가에 분산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에클랏의 흥 쉐-하이 대표는 “글로벌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변화이다”라며 “고객은 우리가 위험을 분산시키길 원하며, 생산기지를 한 국가에 집중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에클랏의 봉제 제품 중 5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아직 다변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자평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조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 기업들이 대만,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을 가장 큰 무역남용자라 부르며 베트남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철강에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기업들은 세계적인 공급 허브의 역할을 할 만큼 관세가 보장되는 안전한 국가가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흥 대표에 따르면, 에클랏은 이제 고객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지역 제조 허브를 여러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에클랏은 앞으로 3년 간은 베트남에서 공장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에클랏은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같은 아세안 국가에 새로운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에클랏은 역내에 8천만 달러를 투자해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위치는 올해 말에 결정할 것이다.

대만에 본사를 둔 다이와(Daiwa)의 애널리스트 헬렌 엔 씨는 에클랏이 다변화 측면에서는 동급 기업보다 앞서 있다며, 공급망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 장기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재개했음지라도,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의지했던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영구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징후가 뚜렷하다.

블룸버그는 인텔이 자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평가 중이고, 애플과 아마존도 플랜B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에 가까운 아시아 국가에 기업들이 몰리면서 포화상태에 접근하고 있다. Li & Fung Ltd.의 스펜서 평 대표는 이달 초 블룸버그에 “예를 들면, 베트남은 포화상태다. 완전히 찼다”라고 말했다.

에클랏은 2016년에 중국에

서 인력 부족에 직면하자 공장을 폐쇄해서 미국 관세 인상을 피했다. 평 대표는 “중국에서 ‘메드 인 차이나’ 시대는 5년 전에 끝났다.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젊은

중국인 노동자들은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중국 투자에 신중할 것이며, 더 이상 중국 노동집약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에 본사를 둔 케세이 증권 애널리스트 라에 싱 씨는 에클랏이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잠재적인 관세 위험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 대표는 유연성을 핵심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고객사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주문을 적게 낼 것이다.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현재 걱정은 인도 또는 멕시코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다. 걱정은 끝이 없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한민국 No.1 보일러

#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株式会社 三湖ボイラー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iler.com

**PT. HANSHIN AIR COMPANY**

**PT. KEINTECH**

**PT. BIO-TECH**

## 기술과 열정으로 다가간다!



**사출**  
일반사출(TPU,ABS,PC,PVC)  
프레스(알루미늄,신주,철..)  
TPR,PU,PVC

**금형**  
일반 금형  
프레스 금형

**코팅**  
진공증착(멀티/알루미늄)  
UV AUTO 코팅

**스크린**

**인쇄**

**패드**









**PT. KEINTECH**

Jl. Wisata Jangari KM 17 RT/RW 001/008 Desa Bobojong, Kecamatan Mande, Kab. Cianjur 43292 - Jawa Barat  
Telp. : 0263-2294286, 0263-2294321, 0263-2294315 Fax : 0263-2294451

해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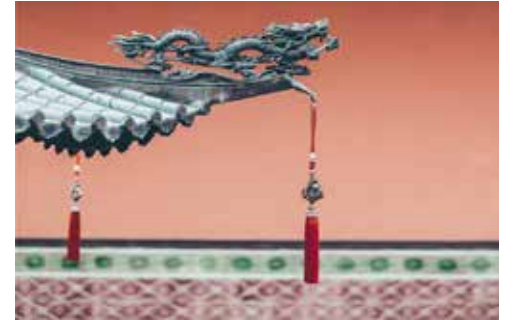
### 크록스, 관세 영향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부 조달 축소 방침

이제는 상징적인 '나막신'으로 유명해진 풋웨어 브랜드 크록스가 2020년에는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물자를 10% 이하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크록스는 중국에서 생산한 상품 중 30%를 미국으로 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풋웨어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관세를 지

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자 크록스는 관세가 사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크록스는 세계적으로 다각화된 외부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브랜드다. 그리고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중국에서 생산한 상품의 30% 가량을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2019년 8월 1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되면 약 500만 달러 정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크록스는 늘어나고 있는 상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자를 줄이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크록스는 이 같은 전략을 토대로 "2020년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



자의 양을 10%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아디다스, 업사이클 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초의 골프화 제작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디다스가 해변과 해안 지역을 가로막고 있었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한 후 업사이클해 생산한 방식으로 만든 한정판 투어 360XT (Tour 360 XT) 골프화를 공개했다. 이 상품은 아디다스가 해양 보호단체인 '파리 포 더 오션 (Parley for the Oceans)' 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진행하는 프로그램 마지막 단계다. 아디다스는 업사이클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사용해 축구와 테니스, 럭비와 야구 등을 포함한 수많은 스포츠 상품을 생산했다. 그리고 투어 360XT는 이 방식으로 제작한

최초의 골프화다. 한정판인 투어 360XT는 오션 블루와 아쿠아 그린,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6월 10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그리고 페블 비치에서 열리는 US 오픈 골프 대회 현장 (6월 13 ~ 16일)과 미국 소매업체 (6월 12일부터)에서 판매한다. 이 골프화는 8개의 스파이크가 달린 아웃솔에 아디다스의 X 트랙션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전체 길이의 부스트 미드솔과 중앙 지지대가 발을 편안하게 만든다. 아디다스 골프의 Masun Denison 이사는 "업사이클 소재를 사용해 만든 최초의 골프화다. 당사는 이 상품을 통해 아웃도어 스포츠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고 자평하고 있다." 고 말했다.

**보세참고 기준규격**

**해킹 걱정까지 없어야 진짜 보안입니다**

SK의 기술과 하나스타의 노하우로 완성된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 - HS View

**HS View를 놓으세요**

**이제 마음 폭 놓으세요**

하나스타의 새로운 스타! HS 뷰 출시!

Cloud CCTV HS View

**HS View. 이런 사업장에 꼭합니까!**

- 보세 구역내의 수출입 통제 관리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곳
- 도난/사고 예방과 증빙을 위한 고품질 영상 데이터가 필요한 곳
-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곳
- 프랜차이즈, 콜센터 등의 다지점 사업장
- 합리적인 가격의 신규 설치나 추가설치가 필요한 곳

**HS View. 이것이 다릅니다!**

| 일반 CCTV            | VS     | HS View                  |
|--------------------|--------|--------------------------|
| 낮은 해상도로 인한 영상노출 위험 | 보안/기술력 | 전문 방화벽이 적용하여 해킹의 위협에서 안전 |
| 본체 또는 녹화장비         | 영상저장   | IDC 클라우드 서버              |
| 고가의 초기구축비용 유지보수 비용 | 비용     | 구축비용 없는 월과금 방식           |

영업문의: 0811 9936 516 / 0811 805 606  
기술지원: 021 4000 2436-9

2019년 가입 고객사를 위한 하나스타의 스페셜 혜택: 설치비 무료 + 월 사용료 최대 20%할인 + 무료 테스트 3개월 제공

www.hanastar.net.id

## CWI ERP

www.cyberworld.co.id

한국의전문개발업체와 함께개발한 SaaS 기반ERP

www.cyberworld.co.id 데모사이트



세관inventory, 경영분석

다양한패키지

PC 한대구매가격으로 세관IT Inventory 시스템사용가능

2019년특별프로모션

- 효율적 회계 관리**: 회계 자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정확하고 효율적 회계 관리가 됩니다.
- 정확한 자재 관리**: IT INVENTORY(보서 구역 전간 자재) 시스템 요구 사항을 부합하며 자재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 적지 적소성**: CWI ERP로 자료 관리를 하여 적지 적소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영 분석**: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분석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해외뉴스



### 미즈노, 신기술 XPOP 사용한 웨이브 스카이 웨이브니트 3 출시



미즈노가 신기술 XPOP 폼을 사용한 러닝화 웨이브 스카이 웨이브니트 3 (Wave Sky Waveknit 3)를 출시했다. 웨이브니트 어퍼 기술을 강화했으며 XPOP와 미즈노 폼 웨이브를 결합해 쿠션감을 더했으며 러너들의 착용감도 개선했다. 발 밑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장거리 러너를 위해 디자인한 웨이브니트 3는 미즈노 폼 웨이브와 XPOP를 사용해 쿠션을 이중 결합했다. 이 제품은 웨이브니트 어퍼 구성으로 사용자에게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적

인 착화감을 안겨줄 수 있으며 역동적인 양말 같은 핏으로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탱해준다. 발 중앙은 강화하지 않았지만 신축성이 있는 니트 구조가 발을 적절하게 지지해 주고 있다.

“웨이브 스카이 웨이브니트 3는 최신 기술인 미즈노 폼 웨이브와 XPOP을 사용한 획기적인 상품으로써 최상의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한다.”고 미즈노의 Chuck Couch 부회장은 말했다.

“당사는 2018년 출시한 기존의 웨이브니트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XPOP 기술을 결합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살리고 편안함과 스타일 모두를 강조한 고급 신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한편, 웨이브 스카이 웨이브니트 3는 16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 포르투갈 풋웨어 산업,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갖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재활용 및 생분해성, 재생 가능 소재를 기반으로 한 제품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공정 과정에서 내구력이 뛰어나며 디자인 요소도 강조한 상품을 디자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포르투갈 풋웨어 산업이 상품과 프로세스 개발 측면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 요소를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실, 지속 가능한 풋웨어 개발의 시작은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 풋웨어 가치사슬과 원자재 선택부터 상품 수명까지 모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코디자인이란 “상품의 수명 주기 내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환경적 측면과 상품의 디자인 및 개발을 통합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의 기술적 요건과 품질, 성능, 기업 위험성, 경제적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포르투갈 기업들은 에코디자인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틀을 사용하고 있다. 수명주기평가 (LCA) 같은 여러 가지 전략 혹은 증명 방법이 그것이다. 상품 및 프로세스를 분석 및 평가하고 우선순위와 개발 기회를

선별하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디자인을 결정한다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이러한 틀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환경적 부작용을 줄이고 생태학적 풋웨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디자인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 재생 가능 소재와 재활용 소재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 생산 단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에너지를 사용해 공정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한다.

□ 깨끗한 생산 및 깨끗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상품 수명 및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한다 (수선 가능).

□ 기능성, 즉 다중 기능과 기능 최적화, 상품 모듈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쉽게 해체가 가능하고 소재를 단순하게 만들며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소재는 피해야 한다.

□ 깨끗하고 효율적인 상품 수리 기술을 통해 사용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줄여야 하고 제품 수명을 늘리고 부품을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 환경적으로 효율적으로 유통해야 한다.

포르투갈 풋웨어 기술 센터인 CTCP는 에코 디자인과 전략, 상품수명분석, 지속 가능한 소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 컨셉트와 생태학적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FAMEST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스위스 기능화 브랜드 ‘온’, 가을 시장 겨냥한 기능성 트레일 슈즈 출시



▲ 온 클라우드락 워터프루프 (On Cloudrock Waterproof)



▲ 온 클라우드벤처 피크 (On Cloudventure Peak)

2010년 러닝화 시장에 뛰어들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스위스 기능화 브랜드 온 (On)이 2019년 가을 시장을 겨냥해 획기적인 신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곧 다가올 계절을 대비해 온이 야심차게 준비한 트레일 슈즈는 트레일 레이싱 슈즈와 스피드 하이킹 슈즈, 두 종류다.

온 클라우드벤처 피크 트레일 슈즈는 다운힐 쿠션이 장착된 경량의 대화용 트레일 슈즈를 찾는 러너들을 위해 디자인됐다.

이 상품은 미션그립 (Missiongrip) 아웃솔과 비틀림에도 강한 스피드보드 (Speedboard), 충격 흡수 클라우드 힐이 특징이다. 통기성이 뛰어나며 내구력이 있는 메쉬 어퍼와 양말 같은 구성으로 정밀한 착화감과 편안함을 보장한다.

신축성이 있는 테이핑이 앞발을 감싸고 있어 지탱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아웃솔에는 다방향성 러그를 장착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고 앞발의 클라우드 파드가 쿠션감을 배가한다.

한편, 클라우드락 워터프루프는 모든 기상 상황에서 거친 지형을 다닐 수 있는 스피드 하이킹 슈즈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됐다.

방수성 어퍼는 통기성을 강화했으며 칼라를 높여 세워 거친 지형과 ‘야생의 날씨’에서도 발목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었다. 스피드보드 구조로 안정성과 움직임을 강화했다.

아웃솔은 그립감과 마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션그립 고무를 사용했으며 제로 그래비티 클라우드 (Zero-Gravity Cloud)를 사용해 장거리를 신어도 발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 부산 신발산업, 첨단 신고 세계시장 향해 뚫는다

첨단 제품을 선보여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해외에서 부산으로 복귀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등 부산 신발산업이 약진하고 있다.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 세관 당국은 신발업체들의 무역종

단과학을 적용한 연구개발로 기능성 신발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어 수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세관은 전망했다. 전자 칩을 내장해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확인시스템(GPS) 신발', 인공지능

해외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반면 경쟁은 치열해 신발 공정을 자동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중국 텐진공장을 매각하고 부산으로 공장을 옮긴 트렉스타 권동철 회장은 "공장 자동화가 이뤄지면 40%가량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인건비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시는 첨단 신발업체들의 인프라 지원에 나섰다.지난 4일 사

상구에서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430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2674㎡에 지상 6층(임대공장)과 지상 3층(지원시설) 2개 동(연면적 2만493㎡)으로 지어졌다.30개사가 입주해 첨단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신발과 부자재를 생산한다.



합컨설팅을 돕고, 부산시는 첨단생산기지를 구축해 신발 메카 부산의 부흥을 지원하고 나섰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산지역의 완제품 신발 수출이 지난해 64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4600만달러)보다 38.3% 성장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부산 신발의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으로, 지난해 3600만달러를 수출해 전년에 비해 58.9% 늘었다.김희진 부산본부세관 수출과장은 "지난해 신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양모로 만든 신소재 신발 등 신기술을 접목한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신발 갑피는 의류 소재로 쓰이는 양모로 제작돼 보온성과 통기성이 뛰어난 데다 밀착은 친환경 소재인 사탕수수를 사용해 '가볍고 가장 편한 신발'이라는 평가를 받아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부산 신발업체들이 첨

시스템으로 운동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슈즈', '저주파 슬리퍼'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첨단신발은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부산본부세관은 신발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을 방문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방안과 원산지 관리, 통관 및 환급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는 등 수출 관련 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해외에서 돌아온 신발업체들도 부산에 정착하면서 신발산업의 도약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부산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부산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신발업체는 총 14개사라고 밝혔다.트렉스타 등이 중국 등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철수하고 부산으로 공장을 옮겼다.

가장 최근에는 고려티티알이 공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협약을 시와 체결해 부산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신발 제조업체의 부산 복귀는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eva-mendat  
Giant EXPRESS  
Best Quality  
Fast Delivery

- Poly Bag (LDPE, HDPE, PP, EVA)
- Garbage Bag
- PE Sheet (plain, embossed)
- Zipper Bag
- PVC Bag
- Shopping Bag
- OPP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E-mail:      bhjangjk@indosat.net.id

T. (62-21) 440 3926      kenleejh@gmail.com

F. (62-21) 440 3944

[www.dongjung.net](http://www.dongjung.net)